언제까지 주는 대로 받으시겠습니까,
다 함께 나섭시다!

2026년 10월 7일.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%의 찬성은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가 담긴 결과였습니다. 이에 지부쟁대위는 10월 9일부터 임·단협 타결 시까지 잔업, 특근 등 연장근무의 통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몇몇 동지들의 탈퇴와 퇴직을 앞둔 선배 동지들의 투쟁 이탈은 시작부터 투쟁 동력을 손실 시키고 있습니다.

현장은 14년간 길들여져 왔습니다. 줄어드는 인원에도, 물가에 못 미치는 인상에도 '그러려니' 하며 받아 왔습니다. 회사는 그 침묵을 동의로 읽었고, 금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. 혼자서는 바꿀 수 없었기에 견뎌 온 시간입니다.

이제 바뀌어야 합니다. 만도지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한뜻으로 함께해야 합니다.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, 다 함께라면 바뀝니다. 회사는 요구가 쌓이는 곳이 아니라 현장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달라집니다. **'나 하나쯤' 하는 생각이 쌓일수록 2026년 임·단협 투쟁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**.

잔업과 특근이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을 잘 압니다. 그래서 더더욱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. 열외 없이 모두가 같은 걸음으로 서는 순간, 회사도 교섭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

선배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앞으로 남아있을 후배 동지들을 생각해 주십시오. '나 하나쯤'이 아닌, '**나부터**'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. 그리고 후배 동지들은 당장 눈앞이 아니라,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. 집행부가 앞장 서겠습니다. **이번에는 받는 쪽이 아니라 바꾸는 쪽에 함께 서 주십시오.**

14년의 침묵을 이번 투쟁으로 끝냅시다. 다 함께 합시다.

2026년 10월 13일

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